

1.종교다원주의 배경
1.동성애 반대
1.차별금지법 반대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31호
9월 28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10월 3일(목) 한국교회 기도회·서울시청앞

한국교회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 주관

전국 17개 광역시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은 오는 10월 3일(목) 서울 시청 앞에서 한국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도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관계자들이 지난 9월 19일(목)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무총장 임영분 목사는 “한국은 현재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는 혼란하며,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안보도 감시를 잡지 못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으며, 시민운동도 진영 논리로 극명하게 갈리는 등 매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교회도 파수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 전파 사수를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며, 거룩치 못한 상황에서,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 교회를 연단시킨 역사적, 성경적 사실을 상기하고, 전국 단위로 한국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도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기도회는 한국교회가 예수님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 앞에 교회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교회가 새롭게 되며,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며, 교회가 우리 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기도회의 특색은 기존의 기도회와 다른 면이 강하다.

첫째, 모든 것을 기도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기도회에는 찬사, 격려사 등 복잡한 순서를 넣지 않는다. 심지어 설교자도 없고, 오직 모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서 크게 7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둘째, 일제 정치적인 구호나 색채를 배제한다.

이번 기도회는 오직 예수님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초월과 내세로 역사하심을 선포하여, 사회 통합과 교회 치료를 우선시한다. 그리하여 위기의 시대에, 순수하게 교회의 결어갈 길을 열어감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기도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일제의 태극



기, 성조기 등도 들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셋째, 특별한 조직이 없다.

이 기도회에는 대표적인 인물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전국 광역시도 회장단이 공동대표가 되며, 각 5개 지역별(경상, 호남, 경기, 충청, 특별)로 운영위원만 두고 실천한다.

넷째, 목회자 중심이 아닌, 젊은 층과 평신도를 대거 참여시킨다.

행사 순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젊은이와 평신도가 참여한다. 목회자도 강단 아래에서 앞뒤로 기도한다.

다섯째, 전국 단위에서 참여한다.

이 기도회에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끌려온 기도회에 참여하게 된다. 호남, 영남, 충청, 강원, 경기, 서울 등에서 모두 참여하게 된다.

이번 기도회가 이뤄지게 된 배경은, 지난 6월에

부산지역에서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처음으로 거론되었고, 7월 30일에 서울에서 지역 연합 대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재확인되었으며, 8월 13일 대전에서 광역시·도 회장단이 모여 로드맵을 결의하고 9월 17일 경기도에서 후원자 등 60여 명이 모임을 가졌다.

이번 기도회는 서울 시청을 중심으로 열리며, 내년 3월 1일에도 ‘엑스포로74’처럼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로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혀지기는 10만 명 이상의 기도 참여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한국교회기도의날
홈페이지 주소 : <https://pack.or.kr>



‘버림받은 사람들’



조용목 목사

“...왕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삼상 15:22,23)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두려운 일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최상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이유와 아울러 하나님의 보호아래 사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하와가 간교한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므로 범죄자가 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선 고하신 대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로, 또는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신으로 여기고 섬기는 우상숭배자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하기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정탐 보고를 하였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과연 낫고 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느낀 것은 합두 명이 모두 동일했으나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밤새 통곡하더니 급기야는 모세를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낫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그날부터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열 정탐꾼에게 즉시 재앙을 내려 죽게 하셨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악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는 중에 아말렉 사람의 왕을 사로잡았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지 않고 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왕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결정적인 선고를 선언했습니다.

넷째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버려들을 당하는 사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하기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레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들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을 갖고 있으며 하나는 데레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들을 당할 것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데레감을 당하고 버려들을 당하는 사람이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뿐 아니라 진실한 신자와 이름뿐인 신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구속신앙이 없고 다만 취미나 교양으로 혹은 종교인으로 살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캄보디아선교지, 교회와 집 물에 잠겨

줄리우어(안녕하세요?)

캄보디아 크라쎄교회 김남근·양순희 선교사입니다.

캄보디아 6년 차 선교사로서 프놈펜 시내에서 3년 6개월간 사역하다가 프놈펜에서 1시 방향으로 320km(직선거리 약 25km) 거리의 크라쎄 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한인 상주 선교사가 아무도 없다는 선배 선교사의 말에 끌려 하나님의 인도로 시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강 건너 시골 마을에 있는 트머리움(현)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지 2년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믿는 가정의 지붕 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부지를 임대하여 지붕을 올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비로 강이 범람하여 교회와 집들이 침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돕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하는 마



음으로 돕고자 합니다. 이번 어려움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실천하여 지역 복음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계좌 797101-00-025137 국민은행 (예금주 김남근)



6.25 전쟁 때 희생된 유해 발굴 장병 위문

교단 군선교위원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위문품 전달 격려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9월 9일(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분들의 유해 발굴을 위해 출정식에 참여한 병사들을 찾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위로, 격려했다.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와 위원들은 부대 내

백미촌교회에서 병사들과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흥천평강교회 박성운 목사는 대표기도를 통해 장병들의 건강함을 위해 간절한 기도로 간구했으며, 박순용 목사는 잠 12:1-3 말씀을 본문으로 ‘살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생활원칙’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장병들은 조국수호라는 자부심을 갖고 주어

진 시간을 잘 활용하며 병역의 의무를 잘 감당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장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했다.

부대장은 추서 명절을 맞아 장병들을 위문해 주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본연의 임무인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유해 발굴의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성경적 창조 조명, 창조신앙관 구축

한국창조과학회 ‘2019 창조신앙교육 축제’ 개최

한국창조과학회(회장 한윤봉 교수, Korea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가 ‘2019 창조신앙교육 축제’를 개최했다. 올해 축제는 2016년 처음 개최된 이래 2회째로 미국 창조과학 단체인 AiG(Answers in Genesis)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19 창조신앙교육 축제’는 9월 30일까지 각 지역별로 개최되며 9월 23~25일까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진행된 ‘성경적 창조론 해외 석학 특별 강좌’, 9월 26일 한동대학교에서 열린 ‘창조과학 특별 세미나’, 9월 28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치러진 패밀리 콘퍼런스를 9월 30일 남서울교회에서 열리는 목회자 선교사 리더 콘퍼런스 등 축제 기간 동안 한국창조과학회 명사들과 AiG에서 파견된 강사들이 성경적 창조론을 뚜렷하게 조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윤봉 교수는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진영의 논리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깨어맞추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진화가 일어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자연은 오직 창조와 심판



의 결과만을 보여줄 뿐 그 기원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하나님께서 진화를 이용해 창조하셨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조화로우며 성숙하게 창조되었으므로 진화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음세대-부모세대-목회자와 교회 리더들까지 모든 세대에게 맞춤형으로 창조신앙관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패

밀리 콘퍼런스’는 어린이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털어놓고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어린이 세션에서는 진화론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공룡이 달라졌다!’ ‘뽕뽕 물에 잠긴 지구’ ‘방주 속 비밀을 밝혀라’ 등의 강의와 공룡화석 만들기, 파크게 만들기 등 흥미진진한 내용과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성민원, 현대캐피코 봉사단과 추석맞이 무료급식

사단법인 성민원(이사장 권태진)은 현대캐피코 반포봉사단과 성민원무료급식센터 추석맞이 행사 ‘어르신 한가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0일(화) 성민원무료급식센터(군포제일교회 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 현대캐피코 봉사단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고 영양식과 요리고기 등을 대접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을 비롯해 현대캐피코 봉사단, 성민원무료급식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캐피코 봉사단은 성민원무료급식센터와 명절맞이 행사를 12번째 진행 중이다.

성민원 권태진 이사장은 “매년 성민원에 관심을 갖고 내 부모를 모시듯 정성껏 봉사해주는 현대캐피코 봉사단에 감사드리고

말했다.

제을용 현대캐피코 봉사단장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며 “성민원 무료급식센터의 귀한 지역에 앞으로도 힘을 보탬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캐피코는 ‘함께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지향하는 사회공헌 철학을 이어받아 지역사회 및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돌보고 그들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사랑 나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성민원은 1988년 군포제일교회 부설 사회복지기관으로 설립되어 21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장대신 제54회 총회 열고 황형식 총회장 추대

“교단 성장 극대화를 위해 최선 다할 것”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제54회 총회가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히 12:2)를 주제로 지난 9월 9일(월) 대전 한화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56개 노회 중 54개 노회가 참여했고, 총 대의원 401명 중 308명이 출석함으로써 개최됐다.

과거 백석과 대신의 교단 통합 당시 ‘대신’의 이름을 지켰던 이래 4년째를 맞는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내실화와 더불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상정됐다. 이를 보여주듯 이번 총회 임원선거에서는 모든 임원후보들이 단독으로 입후보함으로써 만장일치 박수로 축복 속에 임원이 꾸려졌다.

이로써 총회장 황형식 목사(정항성교회)



회)와 부총회장 이상제 목사(한계하는교회), 임면제 장로(영원교회)를 비롯해 서기 강문중 목사(인천주님의교회), 부서기 홍상표 목사(여자씨교회), 회의록서기 모연구 목사(갈릴리교회), 부회의록서기 송재권 목사(동문교회), 회계 용승복 장로(팔복교회), 부회계

김관선 장로(한집교회) 등이 54회기 동안 교단을 섬기게 됐다.

다만 총무 후보 조강진 목사에 대해서는 연임 여부에 논란이 일며 현행법대로 신임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했다.

예장 개혁신교, 제104회 정기총회

총회장 박남수 목사, 총무 강동규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신교 제104회 총회가 지난 9월 7일(토) 서울 종로구 대학교 소재 총회본부에서 개최되어 총회장에 박남수 목사, 총무에 강동규 목사를 각각 재선출하고, 교단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에서 강동규 목사는 출 18:21, 신 1:13, 마 7:221~2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지혜로운 지도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대

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물음 앞에서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면서, “교회 지도자는 살아가면서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은혜로운 말만 교인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것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겸손하게 섬기는 총회’라는 주제로 개최된 동 총회는 교단의 발전과 2019년 여름 수양회를 기도와 재정, 인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해 대구 방주사령교회 담임 김신자 목사에게 공로패를 총회원 이름으로 전달했다. 또한 동 총회는 한국교회연합과 일치를 위해 교단의 모든 힘을 결집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104회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얀마 양곤 국립대 우수교수 한국 방문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낙신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이하, 세계총)는 미얀마 지부(지부장 김균배 목사)가 양곤 국립대학교와 공동 교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GLP 4기생들 중에서 우수 교수들을 선발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하였다.

세계총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양곤 국립대학교 국제 관계학부 교수 1명, 역사 문화학부 교수 2명 등 3명의 교수(Dr. KHIN MYO WIN, Dr. MYO WIN NWE, Dr. MI WIN HTWE)와 리더십 연구소장 김균배 박사 부부 등 5명의 항공료와 호텔을 제공하였으며, 세계총 본부와 세계총 직전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는 합동개혁 총회를 방문하여 선물을 주고받았으며 간담회와 만찬을 가졌다.

특히 한국 방문단은 지구촌 코리아 디아스포라 중에서 특별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의 한글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검토 및 간담회에 참석하였

으며, 한국 항공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교류 증진을 위한 워크숍 및 캠퍼스 투어를 하였으며, 송도 국제도시 유엔 기구를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갔다.

세계총 직전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세계총이 해외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3만여 한국인 선교사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세계총 미얀마 지부장 김균배 목사

는 금번 한국 방문을 통해 많은 배움과 경험, 뿐만 아니라 참여자 개개인들의 지도자 역량 개발에 보람된 시간이었고 또한 비기독교인들이 있었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하며 세계총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총 미얀마지부는 양곤 국립대학교 내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 기수별 종강 후에는 우수 수료자들을 평가와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여 아시아 지역 국가를 방문하며 21세기 글로벌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 55주년 정기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는 지난 9월 16일(월) 오전 11시 구로동 평안교회에서 제 5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에 양정섭 목사를 유임하기로 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이

영춘 목사의 대표기도, 임정태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양정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양 목사는 사 40:27-31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양명하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소원을 만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2부 정기총회에서는 임세준 목사(부총무)의 기도와 전대식 목사(서기)의 총대보고에 이어 양정섭 목사(총회장)가 정족수가 되므로 개회를 선포했다. 회의록서기 최은희 목사를 임시서기로 임명하여 회의내용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전 회의록 보고는 유인물대로 반기로 하고, 시업보고, 재정보고, 각 노회보고, 임원회보고는 유인물대로 반기로 결의했다.

임원선거에서는 총회장 양정섭 목사를 비롯해 부총회장 김홍룡 목사, 이영춘 목사, 양정은 목사, 한세진 목사,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 부총무 임세준 목사, 협동총무 김두경 목사, 강대하 목사, 서기 전대식 목사, 부서기 민경구 목사, 회의록서기 최은희 목사, 부회의록서기 이영숙 목사, 회계 김영의 목사, 부회계 김병섭 목사, 감사 한성옥 목사, 이순례 목사 등 모두 유임되었다.



예장(연합장신), 제55회 정기총회

송기호 목사, 총회장 만장일치로 추대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장신)총회 제55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강원도 양양 낙산본도에서 열려 총회장 송기호 목사를 만장일치로 재추대하는 한편 임원진을 개선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 나의 눈을 밝히소서(시 13:3)”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교역자 자질향상을 위한 연정교육 등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처리했다.

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총무 홍인표 목사 사회로 부총회장 권옥순 목사의 대표기도, 신학노회장 오영순 목사의 성경봉독, 부총회장 이승재 목사의 갈 5:13 말씀을 본



문으로 한 ‘자유의 율법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 총회장 송기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승재 목사는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자유’라고 말한다.”며,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노릇 하는 제자가 되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총회장 송기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먼저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성경을 열심히 읽는 습관을 기르고, 성경을 통해 연구하고 배우는 목회자가 되라”며, “개 교회 제단은 목사의 심판대이니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지키고 마지막까지 진리의 복음을 비추는 목회자들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사)해돋는마을, 추석 한가위 잔치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 위해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정현일 목사, 신생명나무교회) 엘드림노인대학(학장 최에스터 신한대교수)이 주최하고 사회적기회센터서 울(대표 홍석봉 단장)이 주관한 ‘어르신 초청 추석 한가위 잔치’가 지난 9월 9일(월) 열려 정성으로 준비한 사랑의 선물을 증정하는 등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연에는 가수 박일준 씨를 비롯한 5080토리토리 중창단이 출연하여 큰 기쁨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가수 박일준 씨는 감동의 멋진 재담으로 어르신들에게 멋진 노래와 웃음을 선사했다. 이날 정현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늘 어렵고 소외된 곳

을 찾아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박일준 가수와 혼터서울 흥단장과 중창단께 감사를 전하고 어르신 모두 영유간에 더욱 강건하시길 늘 바란다”는 격려와 이번 태풍으로 어려움을

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전했다.

해돋는마을 엘드림노인대학은 매주 5회 각 분야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식사봉사도 병행하고 있다.



절제하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충서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안홍규 목사)는 지난 9월 10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은혜교회(담임 김영권 목사)에서 9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인복 목사(송죽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재무 오수경 목사(장자교회)의 기도와 중경총회장 진등용 목사(새소망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진 목사는 예 3:14-17, 사 58:6-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이 시대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참된 금식을 통한 성결뿐이다. 음식의 절제를 통한 육체적 금식뿐 아니라 매스미디어의 금식,



페락의 금식 등을 통해 세상문화로부터 절제된 삶이 요구되는 시대이다”라며 “그리하면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사 58:9)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자”고 선포하였다.

이어 지방회장 안홍규 목사(한사랑교회)

의 헌금 및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정진학 목사(엘사람교회)의 기도로 시작하여 각종 회부를 은혜가운데 처리하였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순복음은혜교회(담임 김영권 목사)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주안에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GNTC 인형극단, 여름성경학교 인형극 투어 마쳐

교회학교 어린이들, 교사와 학부모에게 큰 은혜 선물

은혜와진리교회 GNTC 인형극단은 교회학교의 올해 중점 교육 주제이자 여름행사의 주제인 ‘진리’에 맞춰 기획한 인형극 ‘다윗과 골리앗’을 여러 성전 교회학교를 순회하며 성령리에 공연하였다.

이번 공연은 7월 6일(토) 부평성전 교회학교를 시작으로, 8월 24일(토) 마지막 평택성전 교회학교까지 여름성경학교의 주요 순서 중 하나로 두 달 동안 이어졌다.

공연을 관람한 어린이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전도하는 생활을 하기로 다짐하였다.



단원들은 8월 30일(금) 저녁 안양성전 대성전에서 파날레 공연을 하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교회학교의 부흥과 극단의 발전을 위해 더 충만한 사명감과 기쁨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목회자 성령대망회 갖고 뜨겁게 기도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김경준 목사)는 지난 9월 9일(월) 오전 11시 생명성순복음교회(담임 정재광 목사)에서 9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오병용 목사(아래 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육백전 목사(소생교회)의 대표기도, 정재광 목사의 설교 순

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창 16:15-17:1 말씀을 본문으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충북지방회 모든 목회자 여러분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 하는 능력 있는 목양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어 서명란 목사(늘평안순복음교회)의 헌금 기도, 김윤용 목사(중평순복음교회)의 축도

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김경준 목사(순복음후영교회)의 진행으로 정재광 목사의 재무보고, 조재호 목사의 회계보고, 민병훈 목사의 서기보고, 김용 목사의 총무보고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다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본 교단의 발전과 지방회 산하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 한 후 이문근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계속해서 오후에는 3부 목회자 성령대망회를 가졌다. 천양인도에는 기호선 목사(괴산순복음교회), 신현찬 목사(기쁨충만교회), 조숙희 목사(순복음주포에교회), 사회에 연재만 목사(순복음양강교회), 대표기도에 윤광진 목사(늘평안순복음교회), 강사에는 중경회장 윤경현 목사(보은순복음교회)가 나섰다. 바로 이어진 4부에는 연재만 목사가 나와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이어 육백전 목사(소생순복음교회)의 축도로 목회자 성령대망회 기도회를 마쳤다.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정석현 목사)는 지난 9월 10일(화) 복된교회(담임 서성영 목사)에

서 9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강신홍 목사의 찬양인도에 이어 김진현 목사(비전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미연 목사(열린순복음교회)의 기도와 표한자 목사(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의 성경봉독, 그리고 사

모 중창단의 은혜로운 특송 후에 중경 지방회장 최병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출 25:17-22 말씀을 본문으로 ‘금홍의 자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성막의 지정소에 두 천사들이 감싸고 있는 증거대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의 목회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더욱 기도에 힘쓰고, 열심을 다하여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김남수 목사(맑은빛교회)의 헌금기도와 서성영 목사의 광고 후에 정석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9월 월례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10월 수련회에 관한 의결을 나눈 후, 수련회를 앞당겨 공주 밤 줄기 행사를 갖기로 하고, 복된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쿠키 쿠키 팽삭지점에서 오찬을 나눈 후에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회복과 충전의 행복한 동행!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김경근 목사)는 지난 9월 9일(월) 인천 강화도에서 아유회를 통해 회원들의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풍성한 은혜 안에서 모든 일정을 보냈다.

강화도에 도착하여 맛있는 점심을 먹고, 서북쪽의 북한 땅과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교동망향대를 방문하여 북한 땅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또한 교동 대룡시장을 방문해 옛 추억을 회상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근처 카페로 이동하여 약 3시간에 걸쳐 이어진 긴 시간의 대화는 지방회의 발전과 무엇보다



목회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목회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어 저녁 식사를 나누며 행복한 교제를 통해 목회현장에서 힘을 낼 것을 다짐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서로의 삶과 경험, 목회정보 등을 나누며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알아가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동역자로서의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경건한 목회자의 자세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이경진 목사)는 지난 9월 10일(화) 오전 10시 30분 온선교회(담임 탁정신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박용진 전도사와 이상숙 전도사의 찬양인도 후, 지방회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강인덕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육준수 목사의 담후 3: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내가 이것을 알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박용진 전도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이경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육준수 목사의 회원점명고 총무 서기보고, 강인덕 목사의 재무 보고, 육준수 목사의

회계보고 후 기타 안건에 대해 토의하고 예정희 목사의 폐회기도로 월례회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8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8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19년 10월 28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게로 참석여부를 10월 21일(월)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1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신 재 영
총 무 목사 이 경 진

생명의 말씀



김택 목사

· 서울서부지방회 중경회장
· 순복음반석교회 담임

본시는 시편 전체의 서문이 되는 시로,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홀로 깨끗이 그 율법을 지켜 나갑니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 시절을 좇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율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상적인 치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1.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곧 행복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1절)

또한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일 마다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삽니다.(6절)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행복한 삶이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행복과 형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복

한 삶, 형통한 삶(2, 3절), 죄를 멀리하는 삶(1절, 119:11),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요 16:33), 생명과 평안이 있는 삶(롬 8:5-6), 즉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시 127:1)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라는 찬송 구절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3)

참된 복은 죄와 더불어 사는 삶에서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모든 죄의 뿌리되는 원죄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죄악의 뿌리인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원죄를 말합니다. 이 원죄에서부터 모든 죄가 생겨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 지라”(창 3:6)

2.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입니다.(2절)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마음에 담고 즐거워하며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적 신학적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톤(헬라의 철학자)은 묵상을 “영혼이 보유하고 있는 내면의 대화”라고 했고, 아퀴나스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대화요, 대화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씀의 손” 에화를 아십니까?

당신의 한쪽 손을 펴보십시오. 새끼 손가락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약지는 말씀을 읽는 것이고, 중지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며, 인지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개의 손가락을 성경책 위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책을 집어 보십시오. 집을 수 있으십니까? 도저히 집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지 손가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지 손가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손가락을 모두 이용해 성경책을 집어 당신 가슴에 대어 보십시오. 이제야 비로소 성경이 당신 것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묵상은 중요합니다. 묵상은 말씀을 그제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동정

루터대학교, 'ISO 21001' 인증



루터대학교(총장 권득철)가 지난 9월 11일(수) 금천구에 위치한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 한국 대학 최초로 교육기관 경영 시스템 인증인 'ISO 21001'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ISO 21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교육기관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루터대학교가 기술사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세계최초의 교육기관이다.

박조준 목사 '목회 나눔 특강'



박조준 목사가 '목회 나눔 특강'을 실시한다. 세계지도력개발원장인 박목사는 목회자 재교육 과정으로 지난 9월 28일 시작해 오는 11월 28일까지 다섯 차례 강의를 경기도 성남 세계지도력개발원에서 개최한다. 박목사는 성경에 기초한 바른 설교법과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덕목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윤경로 이사장, 알렌기념상 수상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윤경로 이사장이 제2회 알렌기념상을 수상했다. 알렌기념상은 제중원신앙공동체에서 태동된 남대문교회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남대문교회는 우리나라 첫 상주 선교사인 알렌의 선교사역을 기념하기 위한 알렌기념상을 제정 시상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1982년에 발족했다.

한남인문문화상 추천



한남대학교(총장 이덕훈) 인문학술원은 제25회 한남인문문화상 추천을 10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지난 9월 23일 밝혔다. 인문문화상은 한남대 설립위원장과 초대 총장을 지낸 인돈(William A. Linton) 박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94년 제정했다. 이 상은 기독교 선교·교육·사회봉사에 힘써 귀감이 되는 인물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언론회 입장을 밝힌다

최성해 총장은 교육자로, 신서(神誓)적 양심으로 말한 것인데, 이를 정치적·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패악이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 딸이 동양대학교(총장 최성해)에서 총장상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동양대 총장은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최성해 총장은 교육자의 양심으로 조국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준 일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언론들이 이 사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최성해 총장이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인 것을 놓고, ‘극우적 사고를 가졌다’는(‘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 ‘김정은 대한민국 방문을 환영 못 한다’(이데일리) ‘조국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부산일보) ‘동양대 총장의 정치 성향에 불신을 표하기도 한다’(오마이뉴스) ‘동양대 총장은 태극기 부대(민주당 송 모 의원)라는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역측이 있어, 이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밝힌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본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이지만, 이사장은 법인 이사장일 뿐, 본회의 운영이나 행정이나 논평과 성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본회는 2001년 한국의 주요 38개 교단과 단체가 합의하여 만들어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 왔으며, 교계 연합 성격을 띠므로 대표체제로 운영되며, 논평 등은 대변인실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를 알아보지도 않고, 마치 이사장이 논평을 내고 본회를 움직여 활동한 것처럼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역측이며 오해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하여 본회가 조국 후보자에 대하여 논평한 것을 가지고 ‘동양대 총장이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이며,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팩트도 분명히 알린다’고 하였다. 그럼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은 모두 국수가 되는가?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 학생들도 모두 국수인가? 한국교회 전체가 국수인가? 그럼 민주당은 국수인가? 이에 답하고 반드시 사과하기 바란다.

본회가 최성해 총장을 이사장으로 모신 것은, 교육자이자 기독교적인 정신과 뜻을 같이하기 때문이며, 이분은 자신의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명한 금융회사와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을 한국에 불러들여 해병대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등, 애국자이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수선재가(修身齊家)의 본을 보인 분이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분이 전혀 관여하지도 않는 ‘태극기 부대’라느니 일방적으로 ‘극우 사고

를 가졌다’고 공격하는 것은, 자신들이 뜻하는 바가 불리하게 되니, 이념적 대립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트린 당사자들은 본회와 최성해 총장에게 사과해야 한다. 교육자의 신서(神誓)적 양심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몰상식과 몰지각한 언어적 폭행이 아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것은 이미 국민들의 생각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다. 그런데도 오만과 억지로 국민의 기본적인 정치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또, 한 양심 있는 교육자와 그가 봉사하는 기독교계 기관을 극우로 싸잡아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편향된 이념적 발상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비

난하지 않고, 기독교와 관련된 문제나, 우리 사회의 윤리·도덕, 그리고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들에만 기독교의 복음적 입장을 피력해 왔다. 즉 기독교 가치관으로 말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극단적 사고로 ‘극우’ 운운하는 것은 기독교 전체와 전쟁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는가?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본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서 서 있음을 천명한다. 그러므로 근거도 없이 간접한 기독교 단체에 행패를 부리는 세력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최성해 이사장은 본회를 이용하여 어떤 권력 행사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며, 이후에 가짜 뉴스로 본회의 명예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을 밝힌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학년도 제1학차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M.M/Master of Ministry)	3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 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 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향료

- ① 전향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길은 오직 기도뿐

한교연, 한국교회 시국에 관한 특별기도 호소문 발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은 지난 9월 20일(금) ‘한국교회 시국에 관한 특별 기도 호소문’을 발표하고 “사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아들이 사로잡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으며 이 시대에 팽배한 거짓과 불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히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 시국에 관한 특별기도 호소문
주의 성령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고 진리, 자유, 사랑의 위대함을 믿고 전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 임하신 은혜는 나라가 어려울 때, 공의가 무너지고 온 국민이 혼란 속에 방황하는 이때를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온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던 엘리야와 모세처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처럼 진리의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 가나안 임성을 방해하는 아말렉과 싸우는 순종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였듯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단합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아들에게 사로잡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야 할 성직자마저도 세속에 걸려버려 거짓을 주님을 버리고 진리를 떠나 스스로 성직을 팔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팽배한 거짓과 불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독교를 혐오집단으로 보는 사람이 편법, 특혜, 반칙 등 이미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이가 어찌 사법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악한 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1천만 성도들은 진리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한바탕으로 기도로 악한 세력과 사상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을 빼앗으려 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고 온 나라를 마치 거대한 동물원처럼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를 속박하며, 자신들이 던져주는 먹이로 사육하려 하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 어떤 세력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금의 자유, 인권, 공의가 박탈당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여전히 침묵하고 교회사회적 분열과 분쟁에만 몰두하는 그 어떤 교단과 교회, 사회, 개인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사탄이 파송한 여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의 꽃을 떨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성직자, 직분자의 가면을 쓰고 은밀히 숨어 세속 권력을 끌어들이며 교회에 분쟁과 해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화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본능을 따라 행하며 복음의 진리마저 거짓으로 둔갑시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분쟁과 미움, 권력과 물질의 쇄사슬에 걸려되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해악을 도모하는 타락을 경계하고, 이들이 회개하고 본질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자신을 성찰하고 거둔 본영의 죄과를 회개함으로 한국교회의 연합, 화합, 통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13만 목회자, 1천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잠잠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리라”(눅 19:40) 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아들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12)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가정마다 시간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첫 번째 할 사명은 기도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3개월간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본질회복을 위한 1, 2차 비상특별기도회를 전국 15여 개 기도원과 함께하며 눈물로 뜨겁게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10월 1일부터 100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교파를 초월해 함께할 것을 전국 교회 앞에 요청드립니다. 매일 새벽기도와 주일 삼일 예배시간마다 같은 기도제목으로 기도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 그라에서 머리를 꺾으며 진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친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도 종교의 자유,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결단해야 할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에 자유 민주주의의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온 국민이 전쟁의 참화를 딛고 피땀 흘려 이룩한 굳건한 안보의식과 한미동맹, 자유 시장경제 등의 선한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하여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으로 세계적인 인재양성이 실현되고, 복음 통일을 이뤄 우리 민족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합심해 기도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아멘

2019.9.20.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구세군, 노숙인 자활시설 ‘양평쉼터’ 수탁 시작

개원 감사예배 드리고 사역의 첫 시작 알려

구세군한국국교회(사령관 김필수)이 서울특별시립 노숙인 시설 ‘양평쉼터’ 수탁 운영을 시작했다. 구세군은 지난 8월 29일(주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쉼터에서 개원 감사예배를 드리고 사역의 첫 시작을 알렸다. 양평쉼터는 지난 2000년 개원한 노숙인 자활시설로, 노숙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함은 물론 공동작업장 사업, 공공근로 취업지원 사업, 영농지원 사업 등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구세군 관계자는 “소외된 우리의 이웃 중에서도

특히 노숙인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돼 감사하다”며 “양평쉼터의 모든 가족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구세군은 양평쉼터와 같은 노숙인 쉼터 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초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서울 ‘은평의 마을’을 비롯해 브릿지종합센터, 희망마을 등 여러 노숙인 지원 시설을 섬기고 있다.

특히 구세군은 국내 최초로 ARC연수원을 개원해 알코올 중독인 및 노숙인을 지원하며, 6개월 동안 중



독치료를 상담,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함께 펼치고 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구조(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암)
- (*고려대학교 송은성 교수님 암포럼에 세계특허받)

2)콜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위염, 위궤양에 탁월 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 (전북대연구논문)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게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박건 목사 // 예하성 목회자평생교육위원



“성경의 지혜를 나누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른 아침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가장 앞서기가 풍성해 보이는 무화과나무 밑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화과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지요. 참 황당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서는 당연히 열매가 없을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튿날이 되어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황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저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이를 줄 머리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안에는 대박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박의 비결을 알기 위해선 믿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것을 이루어줄 줄 믿고 머리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의심하지 말고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배는 가을에 수확하는데, 봄철에 배나무 밑에 앉아 배를 찾고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겠지요. 하지만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는 것이 가능한지 말입니까? 특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교회의 존재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각으로 전도를 생각하고 교회의 성장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막연한 기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과 성장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믿음의 선포’라는 코너를 넣어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선포하는 것과 모르고 선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보다 막연함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모르고 믿음의 본질을 보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면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강하면 물러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런 강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회자로서 올바른 믿음의 본질을 내 교회와 내 목회에 무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질 때, 모든 저주는 물러가고, 교회가 세상 안에 강해질 수 있으며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질 수 있는 막강한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평생교육원은 여러분의 목회에 막강한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서로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충전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서로가 되새기며 세상과 싸워갈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나누고 등을 토닥여주고, 다시금 힘을 내어 세상의 악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신학이 뭐가 필요해!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 고리타분하게 뭐하러 그런 것을 해 귀찮게 시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에는 박카스 병에 비타민을 넣어 만병통치약으로 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못 고칠 병이 없고, 상처에다 바르면 신기하게 상처가 아문다고 광고를 했으니 말입니다. 또 그 약을 얼굴에 바르면 생기가 살아나고 20대 처녀가 될 수 있던 약장수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약을 사용하고 치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일까요?

지금 21세기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박카스 병에든 만병통치약을 준다면 누가 그 약을 사용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는 만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세상과 싸울 힘이 생기는 것이고, WCC와 동성애와 싸울 힘이 생기는 것이고, 단결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목 목사님께서서는 2018년 6월 22일 주일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하여 행할 때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함 뜻을 좇아 결정하고 선택하며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적 방법은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목소리만 크고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형제입니다. 우리가 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분명 사탄은 잔뜩 겁을 먹을 것입니다. 이번 목회자평생교육원을 통해 성경의 지혜를 나누고, 형제애로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1995~2017년 전) 서울극동방송사역
2008~2009년 전) 서울예일여자중학교 교목
현) 미가엘교회 담임

‘하나님과 동역하라’ (고전 3:9) 주제로 1박2일간 열려 전국여교역자국 2019 추계세미나 및 야유회

조용목 목사, 성경적인 역사관과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백영자 목사
전국여교역자국장

전국여교역자국(국장 백영자 목사) 2019 추계세미나 및 야유회가 지난 9월 23일(월)~24일(화) 1박 2일간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및 경기도 광주 화답숲에서 열려 이단 사이비가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오고 있고 종교다원주의와 차별금지법으로 포장한 동성애 등으로 한국교회를 잠식해오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한 사명감당을 다짐하고 사랑과 인내, 열정과 희생으로 땅끝까지 성경대로의 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여교역자들은 여러 순서를 통해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지금 우리나라와 교회가 처한 현실에 대한 바른 상황 인식과 함께 시대적 사명감으로 충만하여져 교회지도자답게 처신하며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것을 다짐하였다.

추계세미나 및 야유회는 첫날인 23일(월) 오후 3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이틀간의 하계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개회예배에는 교단 여교역자국장 백영자 목사의 사회로 시작, 직전국장 한순남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복동순복음교회 협시비품찬양팀의 특송,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재영 목사는 첫날 개회예배에서 롬 1:15-16 말씀을 본문으로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법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헌신하는 교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홍보부장 안선자 목사의 한글기도, 복동순복음교회 남신교회 회원들의 한글송 후 특별제목기도로 '나라의 안보와 국가경제를 위해' 김순자 목사, '교단발전과 한국교회의 부흥, 개교회가 진리를 사수할 수 있도록' 김종애 목사, '여교역자국 성령충만한 사

역을 위해' 이복순 목사가 각각 주제별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신재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여교역자들은 성령충만을 사모하며 뜨겁게 찬양한 후 특강시간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여교역자국장 백영자 목사의 사회, 예배부장 조병희 목사의 기도, 복동순복음교회 협시비품찬양팀과 남신교회 회원들의 찬양,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조목사는 마 7:15-20 말씀을 본문으로 한 특강을 통해 교회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성경적인 역사관과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진정으로 국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도록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제2강 및 제3강교회는 교단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영동제일교회)를 강사로 말씀으로 은혜받고 성령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기적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

이후 회원들은 여교역자로서 목회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역의 모습들을 간증을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었다.

둘째 날 아침 폐회예배에서 여교역자국장 백영자 목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느라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여교역자국 고문 정부용 목사(대림번영교회 당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여교역자국 회원들은 시간마다 설교와 특강을 통해 사명을 일깨웠으며 성령의 역사로 큰 은혜를 받아 목양지에서도 더욱 힘을 얻어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둘째 날 오전 예배를 마친 회원들은 대림번영교회당회장 정부용 목사(에서) 정성과 헌신을 다해 준비한 화답숲 여행 일정에 함께 하며 사람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이 가득한 회원 간의 친교의 시간을 갖고 저녁 무렵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특강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설교
신재영 목사
총회장



특강
김용덕 목사
증경총회장



축도
장부용 목사
전직 부총회장



대표기도
한순남 목사
직전국장



대표기도
조병희 목사
예배부장



대표기도
김순자 목사
행정부장



한금기도
안선자 목사
홍보부장



제목기도
김종애 목사
선교부장



제목기도
김종애 목사
봉사부장



◀◀ 복동순복음교회성도들의 찬양

◀ 찬양인도



제1회 총회목회자 평생 교육 과정 목회자의 생명력과 교회의 생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16)

주최 : 사)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목회자평생교육원



주강사



조용목 목사

- 총회목회자평생교육원 이사장
- 세계하나님의성회 협의회 실행위원
- 한국신학회 이사장
-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정책위원장



정상운 교수

- 전 성결대 총장(제5,6대)
- 현 성결대 신학부 교수
- 현 한국신학회 회장

일시 : 2019년 10월 17일(목) - 18일(금)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수양관 (바울성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전화 : 031)298-3739

대상 : 본교단 소속 원로목사, 담임교역자, 부교역자

접수 : 인터넷 신청 교단홈페이지 (www.aogk.org)

입금 : 회비 50,000원 / 농협 352-1649-7314-33 김용덕(목회자평생교육원)

강사진

김용덕 목사

총회목회자평생교육원 원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영동제일교회 담임

김요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교역자, 영상국장

박건 목사

예일여자중학교, 전 교목 미가엘교회 담임

김인찬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증경총회장
청신교회 담임

신재영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새김천교회 담임

이연주 의원

국회의원 무소속



축 스펠라 세계선교회 창립예배



대표회장 최정식 목사

대표회장 최정식 목사 취임 및 김대진 선교사 파송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델리하우스(무궁화홀) 062-611-3333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2층



설교예하성총회장 신재영 목사



선교사 김대진 목사

후원 : CTS, 극동방송, 기독교타임스, 기독교호남신문, 목양신문

협찬 : 양산풍천민물장어 하우스

후원계좌 : 농협 355-0054-5708-63(소망교회)



국제선교회장
김해상 목사



국내선교회장
백영자 목사



학원선교회장
윤득주 목사



의료선교회장
김혁태 대표



후원회장
최애자 대표



예능선교회장
구경란 목사



이미용선교회장
차연우 강도사



부회장
김승호 목사



사무총장
김몽수 목사



서기
한광희 목사



회계·재무
최애자 장로



감사
추혜진 목사



감사
조길수 목사

초대장을 대신합니다 _ 스펠라 세계선교회 010-2611-6794(사무총장김몽수)

목회자칼럼

이효상 목사 // 한국교회 건강연구원 원장

솔직한 글쓰기와 한국교회 논객



사람은 솔직한 글과 말, 마음을 열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말과 살아있는 글을 대하게 되면 굳게 닫아놓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함을 너그러운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가슴 깊이 묻어 두고 밖으로 마음껏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입술의 언어로 결단 번지르르하게 꾸며 낸다. 이것이 예의 비극이고 적각한다. 솔직한 말이 어떤 땐 자신의 생각이나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버릇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벽을 넘어야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진 비밀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가슴에 깊이 묻어 두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산다면, 교회공동체가 건강하게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모든 것, 모든 일을 사랑의 특으로 살펴볼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혐오, 불쌍하고 보잘것없고, 작고,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남에게 버림받은 것들을 사랑할 줄 알게 해야 한다. 더욱이 그들의 아픔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다.

세상에는 진정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많다. 겉은 번드르르하게 꾸며져 있어 남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한 번쯤은 따져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와 반대로 겉은 불쌍해보도 속은 아름답고 쓸모 있는 것도 많으니 그 또한 살펴볼 줄 할 일이다. 거룩함 속에 속된 것이 있고 속된 것 속에 거룩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세상사는 참으로 묘한 것들이 많다.

20여 년간 15권의 책을 출간하고 매주 칼럼을 쓰다 보니 간혹 이런 분들이 있다.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보

이도록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써고 병든 것까지 들추고 피해져 보여서 무얼 배우겠느냐고. 그렇게 걱정 아닌 걱정들을 주시곤 한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찍,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찾아내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썩은 원인을 여러 면에서 찾아보게 하고 그 원인에 따라 스스로 치료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려는 능력을 가진 곳이 '교회'요, '개혁신의 신앙'이 아닐까.

가톨릭교회는 '교회'를 만들고 이단 사이비는 '교주'를 만들지만, 교황도 교주도 온갖 개혁교회는 건강 한 '목회자'를 세운다. 그런 가운데 목회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나 쓰시는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 가면 쓰임 받게 된다. 이렇게 지라고 켜야 제대로 사람 구실, 직분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요즘처럼 가령 '연합기관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 버리고 존재감 제로라면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글을 쓰면 이익집단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솔직한 글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깨끗하다.

솔직한 글을 쓴다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가 꽤나 요령이나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비보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참 흘리며 일할 줄 알고, 어려움을 이겨 낼 줄 알며, 풀지 못한 일에 대해서 강하게 대항할 줄 알고, 그릇된 일은 비판하여 올바른 길을 찾을 줄도 안다. 또한 보는 눈이 넓고 생각이 깊고, 앞서가서 멀리 내다볼 줄도 안다. 그것뿐 아니라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아름다운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

꽤나 요령으로,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어두워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하여 이렇다저렇다 부러워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남의 괴로움

파위는 모르거나 알아도 모르는 척한다. 사실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척하지만 정말 어렵게 더불어 살아야 할 일에는 발뺌한다. 참되게 사는 맛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한국교회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기쁜 일, 슬픈 일, 어울한 일, 답답한 일, 따져 볼 일, 외로움, 놀라움, 신비로움 등 수도 없이 많다. 신앙이나 인생은 매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과도 같다. 그래서 끝까지 기본 사람만 이 시작을 알 수 있다. 듣는 이들이나 글을 읽는 사람 중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하게 되어 결국 모두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다루는 논객이 생각할 것은 시대정신과 역사, 그리고 사람 등일 것이다. 이런 깊이와 넓이, 그리고 안목을 가지고 슬기로운 신앙생활과 나라사랑, 사명감당의 말과 글로 사회와 소통하며 마음껏 풀어 놓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설교문의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논객, 즉 글쟁이들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마음의 눈을 크게 뜨도록 해야 한다.

솔직한 글쓰기를 통해 최근 집필한 '나이롱 집사와 기동같은 제자'이라는 책은 한국교회와 직분자와 청지기들을 세우기 위해 다시 3·1운동을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펜에 피땀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짙어 썼다. 글 쓰는 재주가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며 쓰다가 죽을 뻔했지만 제 두 아끼는 교회를 향한 소명감으로 항상 무겁고, 제 가슴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열정으로 뜨거웠다. 제 머리에는 온통 주님이 디자인하신 새로운 교회를 열어가길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다.

명절에 쌓인 상한 감정 풀어냈어요!!

제 114차 이모션코칭 1단계 감성지유 세미나가 하이패밀리 주최(공동대표: 송길원, 김향숙)로 9월 20일(금)~21일(토)까지 양평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명절은 끝났다.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피곤한 몸과 명절 때 받은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휴유증으로 남아 후속감정으로 이어진다.

처가·시댁 후속감정이나 부부관계 파괴, 심지어 명절 우울증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무작정 쉬기만 한다고 마음의 상처까지 회복되지는 않는다.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다. 쌓여있는 섭섭함, 소외감, 억울함, 배신감, 분노 등의 상한 감정들이 마음에 쌓여다보면 독(毒)이 되어 강력한 독성을 가진 분노로 발전한다.

명절에 쌓여있는 상한 감정을 풀어내고, 씻어내

고, 흘러 보내며, 상한 감정들을 치유하는 마음 디톡스(Detox)는 명절후유증을 깨끗이 날려 보낼 최고의 선물이다.

본 과정은 언어를 통한 강의가 아닌, 몸을 통한 체험 위주로 진행되었다. 모션(motion)으로 이모션(emotion)으로 코칭하며 그 자리에서(now&here) 마음을 치유한다.

내용은 몸의 감촉 찾기, 나도 모르는 내 안의 감정 만나기, 디톡스 호흡, 감정의 뱀 탈출하기, 핵심 감정: 회개와 용서 그리고 떠남, 감정축제로 구성되어 각 단계를 거치며 독성이 해독되며 마음은 맑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이 되어 관계가 풀리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온다.

이번 과정 체험을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부모, 부모와 자식, 시누이와 올케 등이 함께 치

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원한다.

031-772-3223. www.hifamily.org



신간안내

돌봄의 기술

내 상처가 뭘지 정확히 알고 돌보기 위한 59가지 행복문답



"나를 어떻게 돌보나요? 나 같은 사람도 치유되나요?" 힘든 과거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부터 나를 돌보기로 선택하라! 남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 나에게겐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아니, 정말 많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에게도 들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이 있다.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치유될까? "이제 내 상처가 뭘지 정확히 알고 돌볼 때입니다." 자신도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나, 신앙, 공동체, 연애, 결혼, 부부'에 관한 59가지 문답 속에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나의 상처를 발견하고 해답을 얻도록 돕는다. 나와 닮은 이야기기에 공감한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위로받고 오늘을 당차게 살아가는 당신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 감유비 | 출판사 : 규장 (135*195)mm 240p 판매가 : 13,000원

팀 켈러의 인생질문
(Encounters with Jesus)

2012년 저자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각 사람의 만남을 주제로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고, 누구보다 이성적이었으며, 대부분이 회의론자였다.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은 모든 사람이 한번쯤은 해 봤을 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을 통해 찾는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인생의 질문이 많은 이들을 만나셨고, 그때마다 개개인에게 맞는 해답의 답을 주심으로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셨다. 회의론자였던 나다니엘과의 만남,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만남, 사마리아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과 예수님의 만남들을 저자는 명쾌하고 설득력 있게 해석한다. 이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삶의 질문으로 가득 찬 이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 준다.

저자/역자 : 팀 켈러/윤종석 | 출판사 : 도서출판 두란노 (140*206)mm 272p 판매가 : 14,000원

한눈에 읽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

본문이 이끄는 설교의 핵심



성실한 연구가 열정 없는 설교를 고치는 치료법이다.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위한 고된 주해적 연구가 바로 열정이 태어나는 곳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설교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성실한 주해에 헌신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본문이 당신 마음의 틈으로 스며들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단단한 축수처럼 성경의 말씀이 당신의 영을 감싸고 올라가 마침내 어떤 일을 일으킨다. 불꽃의 감촉임이 화염이 되어가듯,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전제로서 볼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성숙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저자/역자 : 로비 켈러티,스티븐 스미스/권호,김대혁,유형재,임도균 | 출판사 : 아가페북스 (150*220)mm 256p 판매가 : 13,000원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God Speaks Your Love Language)

아는 것에 머물지 말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 풍성하고 선명하게 사랑을 주고받는 것!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독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지원을 넘어 그분과의 사랑을 풍성하게 키워가도록 도전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바로 사랑의 언어, 그 어휘를 확장하면 된다! 저자가 거듭 강조하듯 사랑의 언어들은 하나님 사랑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다. 이는 사랑의 언어를 다양하게 구사하면 할수록 하나님 사랑의 속성과 본질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저자/역자 : 캐리 채프먼/박성은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148*210)mm 240p 판매가 : 14,000원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19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CBS 시네마 다시 스크린에

〈신은 죽지 않았다〉〈예수는 역사다〉〈천로역정〉 CGV에서

CBS 시네마가 지난 4년간의 개봉작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대표 작품들을 다시 스크린에 올린다. CBS 시네마는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전국 CGV 7개 지점에서 'CBS 기독 영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CBS는 그간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믿는 이들 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독 문화 전파사역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좋은 기독 영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지난 2015년 시네마 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 11월 첫 개봉한 영화 〈프리덤〉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30만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한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에 이르기까지 10여편 이상의 영화를 수입/배급하였으며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 〈순종〉과 같은 디유멘터리 영화도 직접 제작하는 등 좋은 기독 영화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CBS 기독영화 특별전'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명하는 〈신은 죽지 않았다 3〉, 역사적으로 살아 계신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까지 총 3편의 영화를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CGV 소풍점, 일산점, 인천점, 의정부태릉점, 복수원점, 평촌점, 안산점 등 총 7개 CGV 지점에서 매주 금/토/



일/오후 3시에 교차 상영하며, 극장 스케줄과 별도로 교회나 단체에서 대관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 상영이 가능하다.

이번 'CBS 기독 영화 특별전'은 대표적인 기독 영화를 다시 한 번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가을 문화 행사, 새신자 초청 행사, 추수감사절/성탄절 절기 행사 등 행사 콘텐츠로 고민하는 여러 교회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의 CBS 시네마 02-2650-7942)

굿네이버스, 자선바자회 2억원 모금

배우 변정수와 플리마켓 열고 저소득층 이웃 돕는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는 변정수 홍보대사, 재능기부 커뮤니티 '위프렌즈(wefriends)'와 함께 자선바자회 '리브플리마켓 2019'를 성료했다고 지난 9월 11일 밝혔다. 지난 7, 8일 양일간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IFC몰 L3층 광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3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13호 태풍 '링링'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약 2억여 원 모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번 리브플리마켓 캠페인에서 모인 후원금은 굿네이버스를 통해 선천성·특발성 심장질환 및 급성 백혈병 환아들과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굿네이버스 '맘센터' 건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변정수 굿네이버스 홍보대사는 "태풍으로 인해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기부천사들이 나타나 사랑을 전해주었다"라며, "이번 플리마켓을 통해서 모인 금액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사랑을 잘 전달하겠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변정수 홍보대사는 2003년부터



굿네이버스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만나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양진옥 굿네이버스 회장은 "변정수 홍보대사와 위프렌즈 IFC 서울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에 작년에 이어 리브플리마켓을 잘 마칠 수 있었

다"라며, "더해주신 온정은 국내 환아들과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전문적으로 돕고, 맘센터 건립에 무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7회를 맞이한 변정수의 리브플리마켓은 참여 기업 및 브랜드, 마켓에 참여하는 소비자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함께 할 수 있는 기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기아대책, 태국 북동부 홍수 피해 지역 긴급구호

우본라чат타니 주 등 32개 지역 태풍 '가지키' 영향...30여 명 희생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태국 북동부 홍수 피해 지역에 긴급구호를 진행한다고 지난 9월 16일(월) 밝혔다.

태국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버들과 가지키, 2주 간의 집중호우로 지난 3일 큰 홍수가 발생했으며, 태국 우본라чат타니주(이하 우본) 등 32개 주에 영향을 미쳤다. 태국 정부에 따르면 158,000여 가구

가 피해를 입었으며 최소 3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차례의 태풍으로 문강이 범람하면서 우본 지역의 피해가 특히 컸다. 기아대책은 현지 시각 16일 우본 와린시 내 이재민을 대상으로 1차 긴급구호를 진행했다. 라면, 휴지, 치약 등이 담긴 긴급구호키트 1,200개를 제작해 배분할 예정이며, 피해 복구 상황에 따라 추가 배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아

대책은 지난 6일 우본, 아소톤 지역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선별했다.

홍성원 기대봉사단(기아대책 파송 선교사)은 "1997년 태국 대홍수 때보다 침수 수위가 더 높다"며 "10년에 걸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건축한 교회가 완공 2주 만에 물에 완전히 잠겼다"고 현장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수익금 전액 신수동 불우이웃돕기에 기탁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사)월드뷰티핸즈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사)월드뷰티핸즈(WBH) 이사장 정현일, 회장 최에스터는 지난 9월 21일(토) 마포구 신수동주민센터 (동장 조태영)에서 신수동 불우이웃돕기 '신수철리 마을축제'에서 뷰티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날 뷰티서비스에는 최에스터 교수(신한대학교 뷰티헬스 사이언스학과 교수)와 미용대학 학생들과 장민옥 사무국장(WBH)과 윤영석 자원봉사자가 함께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네일과 피부마사지 등 다양한 뷰티서비스를 통해 어렵고 소외된 불우이웃 돕기 기금마련 행사를 통해 수입금 전액을 신수동에 기탁하는 등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최에스터 회장은 "월드뷰티핸즈는 촉망받으려신을 비롯한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뷰티서비스 활동과 다문화 가족, 북한동포 청소년과 청년들, 청소년부티지원봉사교육을 통해 치매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봉사뷰티서비스 등 뷰티기술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일 이사장은 "월드뷰티핸즈는 K-뷰티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 등 5대 분야의 전공 대학교수와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으로 뷰티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전도의 강한 용사

저는 늘 가슴 한켠에 전도를 어떻게만 생각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과 시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지난 8월 31일 교회 이전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수 목사의 짧은 말씀 속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전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전도왕이 되고 싶습니다'하면서 어떤아면했습니다. 9월 18일 김종우 담임목사의 초청으로 저희 원돌교회에 오셔서 말씀선포하실 때 전도에 대한 비전을 또 다시 품게 하셨습니다.

현장전도를 보게 되었는데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서 접장에게 예수영접, 축복기도, 사장부부에게 영접기도와 축복기도를 하고 전화번호를 받기까지 너무나도 순식간에 6명을 전도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저희 원돌교회에도 전도대원들이 있지만 비가 오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의 삶을 나누는 것으로 전도를 대신했는데, 박영수 목사의 능력전도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현장에서 수십 개의 교회를 불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영수 목사의 말씀과 간증, 기도회를 통해 방언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던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오랫동안 원말이 올라가지 않았던 권사님이 팔이 올라갔는데 기뻐하였고, 하리와 다리가 파서 걷는 것조차 힘들었던 성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 강대상으로 올라갔으며, 허리통증 때문에 수십 년 고생했던 집사님은 고침을 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중간 중간 예수영접기도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다시 한 번 결단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의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죽는 그날까지 전도하다가 천국가기를 소망합니다. 박영수 목사가 원돌교회에 와서 전도가 어렵지 않음을 알려준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박영수 목사의 능력전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해보 있는데, 핫도그가게 사장, 나물파는 할머니, 집에 다닌다는 아주머니, 카페사장 등 정말로 전도가 되는 것을 보면서 12주의 훈련을 통해 더 체계적으로 전도의 강한 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하셨기에, 전도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들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박영수 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원인원돌교회 이미희 집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생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2019 정기총회

일시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11시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영등포성전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89-1(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2번출구)

임원명단

△고문 : 조용목 목사(예하성)
△고문 : 최보기 목사(기침)
△고문 : 배기은 목사(예장호현)
△고문 : 배진기 목사(예하성)
△고문 : 이준원 목사(예장합동총신측)
△고문 : 김상용 목사(예하성)
△고문 : 최상열 목사(예장동신)
△고문 : 윤덕남 목사(기침)
△고문 : 임종달 목사(예하성)
△고문 : 이용주 목사(예하성)
△고문 : 정부용 목사(예하성)

△대표회장 : 정덕화 목사(예장합동보수진리)
△회장 단 : 회원교단 22인 총회장
△사무총장 : 김용도 목사(기침)
△서기 : 박찬목 목사(예장합동보수)
△부서기 : 김동민 목사(예장동신)
△회계 : 권오성 목사(예장연합오순절교회)
△부회계 : 천점수 목사(예장합동)
△감사 : 이상억 목사(예장연합오순절교회)
△감사 : 구쌍희 목사(예장개혁합동)

가입교단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총회장: 박종철 목사, 총무: 조원희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총무: 이정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진리)총회
총회장: 배재한 목사, 총무: 이상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총회
총회장: 도용호 목사, 총무: 오갑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진리)총회
총회장: 정덕화 목사, 총무: 최달엽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신측)총회
총회장: 김병근 목사, 총무: 최철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합동)총회
총회장: 광점수 목사, 총무: 구쌍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총회장: 이영구 목사, 총무: 유종근 목사
대한예수교연합오순절교회총회
총회장: 강문종 목사, 총무: 권오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동신)총회
총회장: 최상열 목사, 총무: 김동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성목총회
총회장: 이윤숙 목사, 총무: 최천봉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영신총회
총회장: 김혜순 목사, 총무: 박영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명희 목사, 총무: 천점수 목사
대한예수교오순절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김지현 목사, 총무: 오희대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수도)총회
총회장: 오용자 목사, 총무: 한정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은혜)총회
총회장: 김태진 목사, 총무: 송계바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
총회장: 홍록두 목사, 총무: 박영철 목사
한국HIM선교총회
총회장: 홍정식 목사, 총무: 박호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진리총회
총회장: 박태영 목사, 총무: 김은실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신개혁총회
총회장: 이동진 목사, 총무: 최인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푸른빛)총회
총회장: 김호기 목사, 총무: 김영철 목사
세계선교연대총회
총회장: 박용옥 목사, 총무: 최요한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THE COUNCIL OF CHRISTIAN DENOMINATIONS IN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비빌딩 811호
TEL : (02) 786-1601~4, FAX : 782-8095
http://www.ccdk87.com, ccdk87@kom.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9차 전국사모단합대회

모시는 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분주하고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모님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분주한 손길을 접고 함께 모여 몸과 마음의 휴식을 갖고
또한 성령으로 재충전받아 섬김의 사역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기를 소원하여서
제9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에 사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에 4:14)라는 주제로 준비한 은혜의 자리에
전국 예하성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하며 말씀과 성령충만으로 힘을 얻고 합심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님들의 기도후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사모회 회장 김귀순 -

예하성 제9차 전국사모회 증경회장단

증경회장



김관삼 사모
(모향인디옥교회)

증경회장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증경회장



신동신 사모
(청신교회)

증경회장



차추련 사모
(안동성막교회)

직전회장·감사



윤규자 사모
(목양제일교회)

예하성 제9차 전국사모회 임원진

1부회장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총무



김세희 사모
(괴산순복음교회)

부총무



이정희 사모
(송북은혜의강교회)

서기



김숙자 사모
(세종순복음교회)

부서기



조순자 사모
(순복음복원교회)

재무



김숙향 사모
(안성평강교회)

회계



유은희 사모
(예광순복음교회)

부회계



설경희 사모
(순복음제일교회)

고문



최해선 사모
(다락방교회)

고문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회장



김귀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주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에 4:14)

일 자 2019년 10월 21일(월) ~ 23일(수) 2박3일

장 소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세곡리 120)

대 상 예하성 산하 각 교회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 사모님들

등록비 없음

준비물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개인용품, 간편한 복장, 편한 신발

문의 회장 김귀순 사모(010-8973-4250)

총무 김세희 사모(010-2610-3816)

후원 및 사모회비 계좌 농협 352-1317-6813-13

(김숙향 재무, 010-8372-0091)

2019년도 예하성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일정표

시간	요일	10월 21일(월)	10월 22일(화)	10월 23일(수)
07:00~08:00		그 이름 아름다운 사모들이여~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으로! (예루살렘성전)	조식	조식
08:00~09:00				집정리
09:00~10:00			이동	나눔
10:00~11:00			성지탐방 (양화진외국인 선교사모원)	찬 양
11:00~12:00			이동	폐회예배 신재영 목사 (교단 총회장)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접수 및 숙소 배정	이동	새롭게!, 활기차게! 사역의 현장으로!
14:00~15:00		찬 양	여행 (하늘공원)	
15:00~16:00		개회예배 조용목 목사님 (교단 정책위원장)		
16:00~17:00		영상시청과 O.T (지방회별 소개 등)		
17:00~18:00		휴식	이동	
18:00~19:00		석식	저녁식사	
19:00~20:00		찬 양	교제 및 휴식	
20:00~21:00		강의 : 김성근 목사님 (노원한나라은혜교회)		
21:00		기도회 후 휴식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후원 : 총회 및 각 지방회

초대시

이재인 //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은 끝없이 높고, 맑고
스쳐가는 바람 한 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아!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풀벌레 한 마리라도
버리시지 않으시고, 안아 기르시고
먹이시며, 입히시며
하나님이 위에 계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서둘러 온 길로
되돌아가야겠기에
내일을 남기고 바삐 소를 모는 농부의 귀가길

옥수수알이 홀로 머물어 가는 저녁 들판에
고요가 평화의 흥수되어 넘쳐흐를 때
오! 하나님
따م 흘린 농부는 이제 기쁨으로 돌아갈 곳이 있나이다.

낮게 연기 피어오르는
그리 멀지 않는 마을 어귀에
때 지어 돌아오는 동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에서
내일의 꿈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언약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중국 산동성 어느 평야를 지나면서

경기도 나쁜 성평등조례 개정 청구서 접수

경기도청 정문 앞서 기자회견 열고 도청 방문
경기도 전역으로 최대 100만 명 이상 서명참여 목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하, 건강한 도
민연합) 대표자들은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을 방
문해 “조례개정 청구서”를 20일 제출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나쁜 성
평등 조례를 스스로 재개정해주시기를 촉구했으나, 7
월 16일 개정 후 두 달이 넘도록 어떠한 공식적인
재개정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에 경기도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해, 나쁜 성평등 조례를 바로잡는
조례개정청구를 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19세 이상 유권자는
법에서 정해진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경기도는
19세 이상 유권자가 약 1천 60만 명인데, 100분의 1
인 10만 6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을 하면 된
다. 조례개정청구는 지방의회가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

의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
현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이다.

이날 건강한 도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
등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성평등 조례에
대한 개정청구서 및 조례 개정안을 도청에 제출했
으며, 청구 대표자와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할 1,839
명의 위임인 신고서도 같이 제출했다.

이제 도청으로부터 대표자 증명서와 위임신고
증을 발급받으면 서명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최장 6개월의 기간 내에 정해진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도청에 제출하면, 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
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수리하게 된다.
도지사는 수리 후 60일 이내에 도의회에 개정청구
조례안을 전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도의회는 개
정청구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하게 된다. 나쁜 성평
등 조례에 대해 도의회가 재심의해 재개정할 수 있
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다.

조례개정 서명은 경기도 전지역에서 대대적으

로 진행할 예정이며 전자서명과 서면서명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19세 이상 경기도민으로서 선거권
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단기
간에 최대한 많은 서명을 받고자 하며, 경기도민
100만 명 이상 서명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
의 성을 포함하고 있는 ‘성평등’ 용어를 헌법과 상
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것과 성평등위원회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와 상담, 사찰, 교회 등에게 까지 설치하도
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
평등위원회 설치, 운영 비용을 도민의 혈세로 지원
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헌법
의 양성평등 조항에 일치하고, 도민의 기본권을 침
해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적법하고 정당한 내용
을 담고 있다. 도의회가 이번 청구를 통해 나쁜 성평
등 조례를 바로잡아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민의를 반영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

사설

목회자평생교육의 중요성

언제부터가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
다. 그런 제목의 간판도 눈에 띈다. ‘평생교육원’, ‘00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대학교마다 지역주민을 대상
으로 평생교육이라는 명제 앞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백석평생교육신학교’, ‘목회자 평생교
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 그중에서 평생교
육을 가장 잘 설명 하는 것이 방송통신대학이다. 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을 못 한 분이나, 이미 대학
을 나왔지만 다른 전공을 공부하려 할 때 방송통신대
학에 진학하는데, 이렇게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지속
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평생교육이다.

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포함하여 개인의 전 생애,
전 삶의 공간에서 형식에 구애 없이 참여하는 교육 및
학습이다. 평생교육은 영어로 ‘Life Long Education’
이며 한국은 이를 “평생교육”으로, 일본이나 중국 등
한자권 국가에서는 각각 ‘생애교육’, ‘종생교육’이라
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 왜 평생교육이 강조되는가?
오늘날 평생교육이 한국사회에서 교육적으로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현대 사회는 지식기반의 사회로서, 끊임없이 변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사회는 급변하는 지식
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전에는 학교교육에서
배운 것으로 살 수 있지만, 이제는 변화하고 증가하는
지식의 홍수를 위해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
구되었다.

현대인은 매우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시대
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400여 종의 직업의 종류가 있
었으나 1980년에는 약 40만 종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
기에 맞는 직업 교육을 받을 필요가 발생하게 된 것이
다. 즉 평생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
었다.

인간의 평균 수명 연장이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부
각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출생인구의 기대
수명이 53세였던 것이,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에 70세

를 넘어 80세까지 사는 장수시대이다. 노령인구에 노
인교육의 필요성을 점차 느끼게 된 것이다.

목회자 평생교육의 중요성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특
히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4차 산업의 발달
로 인공지능이 목사를 대신하여 최적화된 설교를 한
다고 하는 시대에, 목회자들은 시대를 읽는 지식과 식
견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 갔다. 그렇지만 지금은 교회가 사회와 세상으
로부터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주일학교의 어린이들이 교회
에서 찬송을 할 때, 찬송가를 출판된 찬송가 서적을 사
용했지만, 오늘날에는 멀티미디어 형태의 프라젠테이
션(PPT)이나 동영상 등의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제
목회자들도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이어서 외면당하고 구
시대적인 사람으로 인식될 것이다.

교회의 목회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평신도들에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평신도들의 신앙과 교회의 전인적
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즉 성경말씀 기반으
로 가르칠 때 평신도들이 신앙이 성장되고, 또한 교회
가 성장됨을 볼 수 있다.

예수님도 마 18:19-20에서 “... 내가 너희에게 분
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침은 주님의 뜻이자 명령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에게 참 그리스도인
으로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교육할 사명이 있다. 이
를 좀 더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변화되는 이 시대들흐
름을 알고, 이해하는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 더 나아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성도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말씀과 교육을 사역하기 위해 지속적인
배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금번 교단 총회 목회자평생교육원에서 오는 10월
17일(목)~18일(금)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1회 총회 목
회자평생교육과정은 참으로 의미 있는 행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생각하고 더
좋은 미래교육을 위해 더욱 진일보 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동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혈몬산대부흥회

일시

2019년 10월 28일(월)~31일(목)
새벽 5시30분 · 오전 10시30분 · 저녁 7시

장소

혈몬산교회·기도원(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
(백곡리 산 113번지) 010)2415-2062



김남순 목사(혈몬산교회 담임)

강사진

부흥사회장



김기진 목사
재천순복음양묘교회

부회장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부회장



김건수 목사
제주한미음교회

상임위원



정석현 목사
광강교회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순복음삼흥교회

실무총무



상기찬 목사
동충산순복음교회

재무



조길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회계



우광덕 목사
해미루대평교회

정회원



정환우 목사
순복음빛원교회



지금은 국가적 위기! 지금은 기도할 때!

전국교회여! 천만성도여! 다같이 한자리에! 모이자! 찬송하자! 부르짖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우리의 국가와 교회가 존망지추(存亡之秋)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기 전에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성도들은 모입니다.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내가 아니라도’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라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국가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 한미동맹, 경제회복을 위하여. 위정자(爲政者)들이 정녕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어 시대적 사명,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안보를 위하여, 북한 동포의 신앙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를 위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경건한 사회를 위하여, 청년들의 희망을 위하여, 다음 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협력기관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개신교단협의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협의회, 사)세계개혁교회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기독교영광회, 대한기독교평신도협회, 서울기독교청년연합회, 바른인권위원회(총남), 교회를 사수하는 연합, 사)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 기도의 날

2019.10.3(목)
PM 12:00~14:30

시청역 앞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344-2)

모이자!

찬송하자!

부르짖자!

- 주 최 | 한국기독교 단체 및 유관기관
- 주 관 |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
- 참여대상 | 전국 모든 교회의 교역자와 성도, 단체(지역 시·군·구 기독교 연합) 및 개인 참여 가능
- 참여신청 | 한국교회연합기도회 홈페이지(<https://pack.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9월 20일 이후 접수)
- 문 의 | Tel : 010-2528-9182(한국교회 기도연합) / Fax : 0504-409-9182 / E-mail : pack01025289182@gmail.com / 카카오톡 : 010-2528-9182(한국교회기도연합)

한국교회기도연합

전국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전국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장단 사무총장단
서울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엄신행목사 사무총장 이상형사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서창수목사 사무총장 강안실목사
인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황규호목사 사무총장 강영주목사
대외총장 김길수목사

경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승근목사 상임회장 김수음목사
사무총장 박종호목사

강원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미열목사 사무총장 유화종목사
대전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철민목사 사무총장 오성근목사
세종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임경열목사 사무총장 안치은목사

세종시교회연합회 회장 한수동목사 사무총장 김재현목사
충북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윤태봉목사 사무총장 박성준목사

충남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정진모목사 사무총장 남기홍목사
경북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이정우목사 사무총장 김길동목사

경남기독교총연합회 회장 홍근성목사 사무총장 이범석목사
울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영동목사 서기 윤재덕목사

전남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모경출목사 사무총장 박정환목사
전북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도경목사 사무총장 김동하목사

제주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남수은목사 사무총장 박병해목사
경상남도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홍성근목사 상임회장 박정근목사
사무총장 이범석목사 총 무 신진수목사

서기 이상택목사 부서기 최정규목사
회계 신기성목사 부회계 정천장목사

창원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박종희목사
성산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남일우목사

합포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강영구목사
진해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상철목사

진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팽철수목사
통영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안상국목사

사천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오태열목사
김해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안용식목사

말양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홍성진목사
거제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장인용목사

양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허남길목사
의령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윤영중목사

함안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효성목사
창녕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성준목사

고성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택원목사
남해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정영진목사

하동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박성호목사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지훈목사

함양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엄용식목사
거창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손부익목사

합천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연오목사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정우목사 대표부회장 설정수목사, 임영식목사

상임회장 신재영목사 사무총장 김길동목사
사무차장 김용수목사 상임서기 박금배목사

부 서 기 회기목목사 회록서기 박범구목사
회 계 이상길목사 부 회 계 김재정목사

감 사 남세환목사, 공광승목사, 한상봉목사, 지태룡목사
경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정태훈목사

경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종래목사
고령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정도현목사

구미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안정현목사
군위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재천목사

김천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진종구목사
문경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보현목사

봉화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류조희목사

상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안상현목사
성주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성경환목사
안동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규철목사
영덕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경용목사
영양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박갑선목사
영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공광승목사
영천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윤대성목사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박훈목사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양한모목사
울진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조한덕목사
의성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종만목사
청도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손국원목사
청송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홍성훈목사
칠곡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최대진목사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서창수목사 상임회장 임석웅목사
상임회장 임영문목사 상임회장 박남규목사
장로상임 장권, 신관우
사무총장 강안실목사 서기 박경만
부서기 윤정우 회의록서기 장현석
회의록부서기 류진민목사 회계 천충태목사

강서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근재목사
강정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정은일목사
기장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신수복목사
남 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허현구목사
동 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대훈목사
동래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정동준목사
부산진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임영문목사
북 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류재덕목사
사상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강영구목사
사하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정규용목사
서 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양승기목사
수영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유은수목사
연제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기동목사
영도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소훈목사
중 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창훈목사
해운대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현일목사

한국교회연합기도회 대구지역
기독교 대표 이상민목사

울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영동목사 서기 윤재덕목사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도경목사 사무총장 김동하목사

전남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모경출목사 사무총장 박정환목사

광주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리종기목사 사무총장 한상영목사

대전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철민목사 사무총장 오성근목사

서기 김지철목사 회계 노양재목사
중 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송영진목사

서 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오정무목사
유성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근수목사

동 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병후목사
대덕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윤찬호목사

세종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임경열목사 사무총장 안치은목사

(사)세종시교회총연합회
회 장 현수동목사 고 문 박복수목사

공동회장 김주오목사 부 회 장 이난시목사
사무총장 김재현목사 총 무 박종선목사

회 계 김한나목사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진모목사 상임회장 김상윤목사
사무총장 남기홍목사 서 기 연기욱목사
부 서 기 김인호목사 회 계 함동주목사
부 회 계 이재웅목사 회의록서기 한인섭목사
부의회의록서기 임병철목사
계통 기독교연합회 회장 전병학목사
논산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영준목사
금산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병목목사
태안 기독교연합회 회장 박준하목사
공주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중우목사
서산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기용목사
보령 기독교연합회 회장 신영길목사
청양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동원목사
부여 기독교연합회 회장 조용호목사
천안 기독교연합회 회장 임종원목사
아산 기독교연합회 회장 손 혁 목사
당진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동일목사
예산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승환목사
홍성 기독교연합회 회장 정진원목사
서천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 준 목사

충북기독교총연합회조직
대표회장 윤태봉목사 사무총장 박성준목사
청주 기독교연합회 회장 윤태봉목사
충주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광일목사
제천 기독교연합회 회장 박정민목사
단양 기독교연합회 회장 안병준목사
음성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수일목사
진천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동환목사
괴산 기독교연합회 회장 장석남목사
증평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석환목사
옥천 기독교연합회 회장 양병만목사
영동 기독교연합회 회장 양성모목사
보은 기독교연합회 회장 정진웅목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조직
대표회장 최승근목사 상임회장 김수음목사
사무총장 박종호목사
수원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관호목사
가평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주형목사
고양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강성봉목사
과천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원준희목사
광명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최영권목사
광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전용국목사
구리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희수목사
군포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재웅목사
남양주 기독교연합회 회장 장창만목사
동두천 기독교연합회 회장 전진호목사
부천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조예환목사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재희목사
시흥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차갑선목사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권병학목사
안성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양중목사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임용택목사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정광호목사
양평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정동훈목사
여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용길목사
연천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민복기목사
오산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민선기목사
용인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윤호균목사
의왕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영학목사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회장 서재운목사
이천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한연석목사
파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박종철목사
평택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오세환목사
포천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성환목사
하남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박경순목사
화성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정기목사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미열목사 사무총장 유화종목사
춘천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종익목사
원주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손수진목사
강릉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중익목사
동해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문재환목사
속초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성호준목사
삼척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표나일목사
태백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홍렬목사
횡성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인범목사
홍천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창덕목사
영월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주영준목사
평창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조창환목사
정선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박영우목사
철원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류호정목사
화천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홍경일목사
양구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정택화목사
인제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정연성목사
고성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해수목사
양양군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신동철목사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황규호목사 상임회장 김태일목사
사무총장 강영주목사 사무처장 조영래목사
서기 김치수목사 회계 김재택목사
중 구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노신래목사
동 구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우강국목사
미추홀구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이선목목사
연수구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정일량목사
남동구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신목사
부평구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갑식목사
계양구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신석목사
서 구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최원희목사
강화군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원영희목사
옹진군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주성목사
검 단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한신현목사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신행목사 사무총장 이상형사관
제주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남수은목사 총 무 제주중앙 박병해목사
부총무 노형중당 박영조목사
서 기 수산 최병준목사 부서기 제주한마음 김건수목사
회록서기 제주언덕 최진한목사
회록부서기 제주인디옥 이순구목사
회 계 위미 오승식목사 부회계 이도 한복용목사
감 사 제주열리는 노찬환목사, 청수 최창환목사

제주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정종열목사
서귀포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임진성목사

전국17개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운영위원장 임영문목사
경상권 운영위원 임영문목사
수도권 운영위원 김길수목사
충청권 운영위원 박진홍목사
호남권 운영위원 배승수목사
특별위원 정근장목사

한국교회연합기도회 기획위원회
기획위원장 김철민목사 총보위원장 이영주목사
대외협력위원장 김영길목사 인터넷미디어 이종현목사

현금계좌:
신한은행 100-033-871623 (사)한국교회언론회